

‘눈물’ 보인 손흥민 팬들 “더 좋은 팀에서 뛰어야”

리그컵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손흥민(29·토트넘)은 눈물을 보였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인터풋볼’에 따르면 토트넘은 전날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웹블리스 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1로 패배했다. 맨체스터의 일방적인 공세에 토트넘은 슈팅 개수에서도 2개-21개로 밀리는 등 맥을 추지 못했다. 13년 동안 이어진 무관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토트넘이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아직은 자랑스러워할 순간이 아니다. 결승전에서 패배한다면 선수들도, 팬들도 속상할 것이다. 모두가 우승을 원한다. 특히 팬들을 위해 트로피를 가져오고 싶다.”며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간절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토트넘 선수들과 손흥민은 크게 좌절된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아쉬움의 눈물을

쏟기도 했다. 2년 전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처럼 우승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했기에 슬픔은 배가 됐다.

손흥민이 눈물을 보이자 맨시티 선수들이 달려와 위로를 건넸다. 일카이 쿨도안과 필 포든은 손흥민의 등을 토닥였다. 손흥민과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연을 쌓아온 케빈 더 브라운너도 위로를 잊지 않았다. 가레스 베일도, 그리고 손흥민만큼 트로피가 간절한 해리 케인도 손흥민을 안아줬다.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의 모습이 등장하자 토트넘 팬들은 위로의 말 대신 “손흥민은 이제 트로피를 위해서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여기에 있기엔 너무나 큰 선수다”,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새로운 팀이 필요하다.”며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두 번째 경기에 나섰던 메이슨 감독 대행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나도 이 구단에서 뛰었고, 결승에서 진 적이 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말했다. 이달 19일 조제 모리뉴 감독이 경질당하면서 임시 사령탑에 오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선수들과 결승전을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뿐이었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그만큼 팀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100% 헌신했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덧붙혔다.

토트넘은 2016-17시즌 이후로 리그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현재는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UCL) 진출도 어려워졌다. 손흥민의 나이도 곧 30살을 바라보고 있기에 전성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곧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 경기 후 눈물을 보인 손흥민. 사진=트위터(B/R Football)

양현종 ‘ML 데뷔전’ 호투 텍사스구단 진기록 작성도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MLB)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2월 꿈의 무대를 찾아 한국 기아 타이거즈를 떠났던 양현종은 MLB 첫 무대에서 팀의 요구에 부응하며 32년 만에 텍사스 구단에 진기록을 선물했다.



▲ 양현종. 사진=mlb.com 캡처

지난 27일 ‘OSEN’에 따르면 양현종은 전날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경기에서 4-7로 뒤진 3회 2사 2, 3루에서 등판했다. 몸이 풀리기도 전에 등판했지만 7회까지 4⅓이닝 5피안타 1탈삼진 2실점이란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지난 2월 텍사스와 마이네리그 계약을 맺고 초청선수 신분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시범경기에 나왔다. 시범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40(10이닝 6자책)을 기록하며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이날 처음으로 MLB에 ‘콜업’ 됐다. 콜업된 당일 등판한 것은 텍사스 투수진의 부침 때문이다. 텍사스는 투수들의 부진으로 심한 투수력 소모를 겪고 있다.

이날도 선발 조던 라일스가 초반 대량 실점하면서 양현종이 구원 투수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처음 올랐다. 실점 위기에서 앤서니 렌돈을 2루수 뜯 공을 처리하며 첫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위기를 벗어났다. 양현종은 4-5회를 무실점으로 막았고, 6회 1사 1, 2루에서 월시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았고, 7회 이글레시아스에게 솔로 홈런으로 추가 실점했지만 7회까지 안정적으로

경지를 이끌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텍사스 구단의 존 블레이크 홍보 담당 부사장은 양현종이 세운 구단 진기록을 소개했다. 그는 “양현종은 텍사스 선수 중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두 번째 많은 구원 이닝(4⅓이닝)을 던진 투수다. 1989년 스티브 윌슨이 데뷔전 구원으로 5⅓이닝을 던졌다.”고 전했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을 비롯해 현지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양현종은) 데뷔전에서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며 “경기 중 공을 받은 호세 트레비노(포수)도 더그아웃과 양현종에 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투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경기 후 “긴장은 하지 않았다. 많은 팬들이 찾은 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건 역시 재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실점을 내준 상황에 대해 내 자신에게 솔직히 실망했다.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면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을 거라고 본다. 팬과 팀, 동료들에게 좋은 선수로 남고 싶다.”고 첫 번째 메이저리그 등판 소감을 밝혔다.

텍사스는 이날 에인절스에 4-9로 역전패했고 라일즈가 패전투수가 됐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